

희망실천

2013 Spring. Vol.16

<http://www.em21c.com>



봄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윤동주〉





희망실천

2013 Spring. Vol.16

- 04 여는글 | '신나는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1 소통' **원장 인사말**
- 06 특집글 | 한울사회복지연구소 **장혜경 소장**
- 08 2012년 주요사업평가 및 2013년 주요사업계획
- 10 2013년 신규프로그램
- 12 2013년도 EM실천 희망나무
- 14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새식구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금천지부
- 16 세부(CEBU)에서 온 편지 **임성수팀장**
- 20 설날프로그램 | '구르는 재미가 있다'
- 22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해외연수 보고서
'일본 베델의 집 방문기 '
- 26 법인소식
- 법인TF팀
- 이사회
- 30 2013년 주요 복지정책
- 32 NEWS
- 34 자원봉사 및 후원자 모집

발행일 2013년 3월 29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2013 봄 | 여는글

신 나 는 일 터 만들기 프로젝트1

'소통'

EM실천 | 김영환 원장

4
+
5

어느 마을에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순수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여 모두가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바보라는 소리가 듣기 싫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바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하게. 그럼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고 하지는 않을 걸세. 청년은 그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리정연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청년이 갑자기 모든 의견에 반박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불만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청년을 보고 현명하고 존경스럽다고 하여 따르기도 하였지만 자기들의 일이 해결되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나타나면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기 시작했고, 어느 모임이건 자리에서건 청년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청년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혼자가 되었고 외로움에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EM실천이 “신나는 일터”가 되기 위해선 일이 많이 바쁘고 수입도 많고 월급도 많고... 이것이 행복하고 신나는 일터의 모든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필수요소는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2013년에는 EM실천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EM실천의 직원들과 장애인근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장인 나의 의견을 지시하기 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실천 미션인 “당사자주도 정신보건실천”을 실현시키기 위해 EM실천 정신장애인근로자들과 함께 서로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은 한해,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필수요소는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

“ 사람과 일” ”

한울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장혜경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은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내가 누구인가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를 찾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은 더 중요하다. 일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주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도록 해주며, 나의 관심사도 찾아가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사회 안에서 내가 만족스럽게 머물 곳을 제공해준다.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의 화두인 “독립”이나 “자활”도 일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의 과정은 정신장애로부터 “회복”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여겨진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문제는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일의 문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일을 찾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또다른 어려움을 가진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곳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둘째, 원하는 일을 갖는다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기는 더욱 어렵다.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여러 일자리들은 정신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다.

셋째, 정신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일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긴 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일하기를 강요하지만 일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될까? 여기서 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보기를, 넓혀 보기를 제안한다. 우리는 흔히 임노동, 즉 일의 댓가로 돈을 받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댓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대개 일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남을 돕는 일도, 집에서 하는 일도, 모두 임금을 받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가치있는 일의 폭을 넓혀 간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각 개인, 개인이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나가기에 모두 기대한다.

그러나 “독립”이나 “자활” 뿐 만이 아니라 “상호의존”이나 “공존” 도 가치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모든 인간은 상호의존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어 나만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서로 잘하는 일을 찾아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꿈처럼 여겨지고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 안에서는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정신장애인들과 일에 대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온 EM실천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수 있다. 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하기만을 요구해온 사회에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실험이다.



2012년 EM실천 실행 사업평가

01 주요 실행 사업 성과

- 1) 2012. 3. 16 금천구청,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과 EM실천의 미래” 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
- 2) 직원교육활성화(환급 및 직무관련 교육과정에 참여(11명/49회),디자인팀 역량강화교육 : 인디자인교육(2명), 총무기획팀 역량강화교육 : 오피스과정(2명))
- 3) 자원개발을 위한 외부 프로젝트사업 5회 제안, 이중 1개(기능보강사업으로 7,411천원 지원)만 선정
- 4) 사업별 전문성강화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별 훈련생 7명 참여, 현수막사업2명, 우편발송사업에 3명 배치
- 5) 전년대비 매출향상 23%달성
- 6) 매인매출관리를 통해 미수금률 감소
- 7) 분기별 직업재활프로그램 회의 강화(한자능력시험을 통해 국가 공인자격증 및 상공회의 자격증 취득, 수료식, POP, 철보동아리는 송년회를 통해 전시회)
- 8) 장애인직업재활의날(2012.10.30.) 인쇄협회의체로써 참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홍보

02 주요 자원 개발 및 동원 성과

- 1) EM실천 10주년 기념 세미나 진행
- 2)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금천지부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선정
- 3)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선정, 7411천원지원(디지털인쇄기, 1톤 유캐트럭, 2도 봉투인쇄기 지원)
- 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5명 인력보강
- 5)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개발비 지원(현수막 쇼핑목제작(2013년 1분기내 운영예정), 전문컨설팅지원)
- 6)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휴머니즘 프로젝트사업 선정, 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pop)
- 7) 수익사업별 관리시스템 보완
 - 수익사업별 근로장애인 훈련강화(현수막사업2명, 우편발송사업3명)
 - 매출관리를 통해 사업별 분리독립가능성 평가
- 8) 법인의 미션비전수립과 함께한 EM실천의 미션비전수립
(미션 : 희망실천 ‘EM실천’, 비전 : 2017년 도 희망 · 성공 · 도전기)

03 사업 평가 및 보완할 점

- 1) 인적관리시스템 미흡(근로장애인,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고객관리)
- 2) 재물관리 부족(사무기기관련 정기점검필요)
- 3) 종사자복리후생(팀별, 사업별, 모임강화필요, 종사자 연수강화 필요)
- 4) 행정업무매뉴얼을 통한 전직원 및 신입직원교육필요(회계교육, 사례관리교육, 신규직원교육, 일반행정교육)
- 5) 매출매입관리를 위한 UP& DOWN 전략강화(사업관리방법의 일원화, RE-MAKE ↓, 2011년대비 고객의 불만사항, 오류로 인한 재작업 감소, RE-ORDER ↑)
- 6) 수익사업분야강화(미수금관리, 일원화된 견적시스템, 지속적인 장비보강, 고객관리시스템, 참여자의 직무능력강화)
- 7) 예산관리(매출매입관리강화)

2013년 EM실천 주요사업 계획

01 지속가능형 직업재활시설 EM실천

- 운영매뉴얼 마련(수익사업, 팀, 서비스과정)
- 매출(10%성장)매출관리를 통한 수익사업의 안정과 발전
- 새로운 아이템 모색
- 사회적기업 3년차, 재 인증준비

02 한울과 함께 하는 EM실천

- 법인내 직업재활서비스의 구심점으로 발돋움
- 법인내 직업재활팀을 통한 서비스매뉴얼 마련
- 법인의 미션을 공유하는 직원교육활성화

03 기획, 홍보력 강화를 통한 희망실천

- 프로젝트사업(장비보강사업별 및 신규사업), 프로그램)
- 정기적인 소식지의 웹진활성화
- 고객관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과 만족도 조사

04 소통하는 EM실천

- 시설장, 3년차 종사자, 중간관리자를 위한 연수강화
- 팀별, 수익사업별, 근로장애인간 모임 강화
-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이 함께 하는 연수 및 캠프 강화

05 도약하는 EM실천

- 2013년 직업재활시설 평가 실시
- 우수평가로 시설의 인지도 향상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

2013년 신규프로그램 소개

1 지식과 배움을
두 배로~팍팍!!
소인성교육

소 방교육

인 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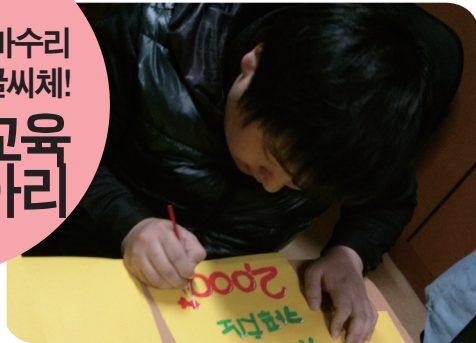
성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탈바꿈된 소인성교육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2

수리수리마수리
마법의 글씨체!
POP교육
& 동아리



3

최고가 되어보자
직무교육



소수의 인원에게 최대의 기술과 지식을..

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훈련생으로 도전!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를 보강

더욱 질 높은 교육과, 나아가 최선을 다해 최고를 약속드릴 수 있도록....

훈련생들은 여전히 열공중 ... 💧💧

12
+
13

EM실천 가족의 2013년 한해 소망 이야기

바정아
건강하세요...

유 영익! 후회
없게 건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홍 민성
만 사 형 통

박수현
2013년 모든 일
대박!

한영
행복한 주일이
건강과는 관계없음...

선애 야
그만 아프고
사랑해...

이진숙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이어트 성공!

황진희
수려하게 나수
만사형통~!!

배수영 ~
건강을!
정신도
안으로~!

김정희
건강하고 돈 많이 모으

국재민
재귀 씨의 무수출산

신준로
소집 해제

박동민
최종치 않고 오다

김재욱, 김사민
영양이 해서 연말에
회복 4원되고
아빠의 가슴에 작대
기에서 보다 정글 거
바랍니다.

김영환
EM실천 대학나게
해 주세요!
P.S 키가 크면 ^^

김나
문득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희자
항상 감사 하는
마음으로 살자

야호모
동아리 5월달에~
만나서 뽀뽀!!

강 원석
행복한 일 가득한
한 해의 끝..

작은
여유는 갖는 편에
있으면 좋다.

OK 미소
평생에 기쁨하라

조 하간
몸 건강하고
디자이너 성공하기.

조은일
가득하길
- 감동 -

강정식
건강
건강

인생은
입춘대길

임영호: 병이 사라
지며, 내사가 잘 먹길
바란다.

장 정임
평생 각 집은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기원
꿈에
들기!

신영권
건강!

박민정
일부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별할건
화이팅

백신: 가장 귀찮고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조은숙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수영 배수면서
전통 요리하기.

이지영
하루하루가 같이
되어 좋으면 좋
겠다.

강진호
건강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몸아프지 않았
쏘면한다.

홍정기
2013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풍년이
가득하길 바래요.

이성우
성취. 보. 외. (조카)

최형진
우리 종가지 함께 축하
"EVER ENDING"

차금주
제주도 가고
산더 화이팅

새로운 직장에서 좀더
올해 열심히 노력

소용현
건강하고 쏘다

조범현
라고 싶은 걸 아라,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금천구립보호작업장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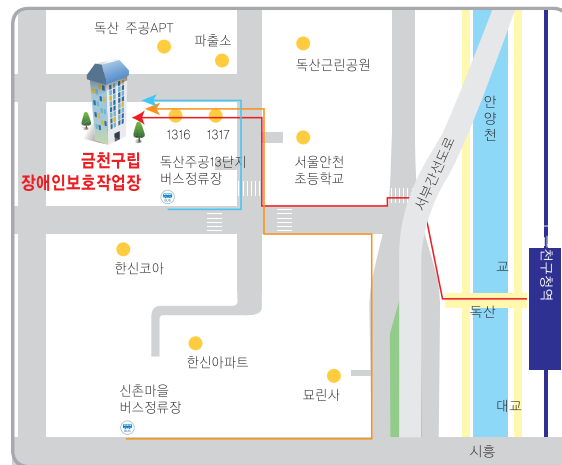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2012년 8월에 금천구립보호작업장을 위탁받아, 2013년 3월 준공이 완료되어 모든 이의 축복 속에 개원하였습니다.
신규 근로장애인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금천구립보호작업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오시는 길



● 근무시간 : 오전 10:00~17:00

● 채용절차



홍보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및 면접



합격여부
개별통보

● 제출서류

- (1)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 (2) 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취업계층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각 1부
- (5)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부
- (6) 직업평가서 1부

● 지하철 : 1호선 금천구청역 하차하여 독산교 다리를 이용하여
안양천을 건너후 안전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독산주공B단지내 1316동 옆건물(도보 약 10분~15분)

● 버스노선 : 5627, 5633, 505 (신촌마을 하차(도보 약 15분))

5535, 5630, 6635 독산주공13단지 하차(도보 약 5분)

독산주공B단지내 1316동 옆건물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88-1 2층

● 연 락 처 : 02-897-9747

보고싶은 이맘식구 여러분!!!

EM실천 바라기 | 임성수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도 이곳 필리핀 세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 선 겨울이 그리울 정도로 더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도 만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났네요. 이곳생활은 반복적이긴 하지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일본과 타이완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다들 친절하고 마음씀씀이가 좋아서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물론 대화가 잘 되는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해서 간단한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지요. 휴일이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맘껏 자유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신변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매사에 조심해야하지만 그것만 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프니라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트럭같은 것을 개조해서 만들어 한번에 꼭꼭채워서 한 20명까지는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는 계기판도 없고 이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 궁금한 차도 있습니다. 우리돈 25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택시만 탔었는데 이제는 현지인이 다 됐는지 아주 잘 타고 다닙니다.

카본이라는 시장에서는 5000원이면 과일을 한아름 가득 사올 수 있는데 특히 망고가 싸서 자주 사먹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냈었는데 여기서 싼것 먹고 가려구요.

사람도 많고 도둑도 많은 곳이라 꼭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가야하는 곳이라고 해서 늘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죠. 너무 제 얘기만한것 같네요. 요즘 이엠은 어때가요? 여전히 많이 바쁘가요? 이엠에서 적지않은 시간을 함께해서인지 늘 궁금하고 한명 한명이 그림고 보고 싶네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했던 동료 직원들과 회원여러분 모두들 보고싶습니다. 특히 영권씨는 겨울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정임씨는 떨림증상 잘 극복하고 있는지, 민주씨는 잘 참으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지, 이진숙 팀장님은 위가 좀 늘었는지, 장윤샘은 이제 좀 적응이 됐는지, 준호는 일찍 좀 다니는지, 미나샘이랑 수현샘은 남자친구 좀 만들었는지, 정식샘은 건강 좀 나아졌는지, 박미선 팀장님은 넷째준비가 잘 되고있는지, 원장님은 여전히 많이 바쁘신지, 형광실장님은 건강 좀 나아지셨는지, 새로들어온 출력기는 잘 가동되고 있는지 등 이것저것 궁금하고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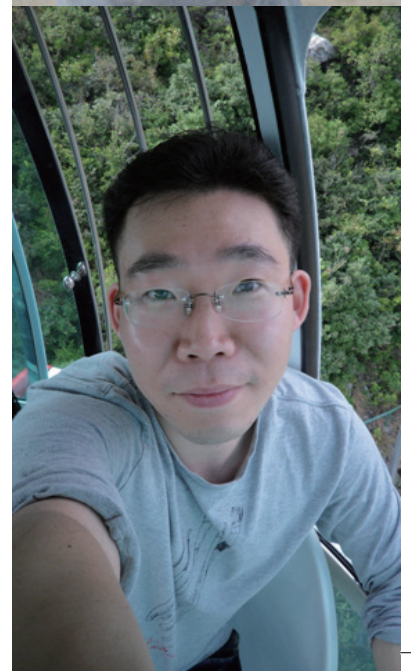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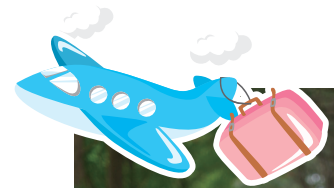
어여 빨리 가서 뵈고 싶습니다. 예전엔 이엠을 떠난 저, 저 없는 이엠을 상상하지 못했었는지 이제는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늘 한발한발 전진했던 이엠실천이니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갔을때는 더 좋은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저는 이곳에서 4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시 호주로 갈 예정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적지 않은 나이에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가는 것이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은 덜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나 이엠실천이나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엠식구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PS. 현모샘 결혼식 못가게 돼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고, 경이샘은 내가 가면 동태당 꼭 사줘야 하니 끼떡지 말고 메모해 두도록, 윤경샘이 선물해준 책은 이곳 일본인 친구들과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하루키는 아주 인기가 많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범선이 이제 제대 얼마남았지?



꿈과 희망을 전하는

EM실천 "DM사업"

18
+
19

DB, 출력관리

- 1) 주소록 DB관리 및 정리
- 2) 주소인쇄, 라벨출력 등
- 3) 가변데이터 안내문 출력 가능

각종 인쇄물 제작

- 1) 봉투(전산, 비닐, 일반, 창봉투 등)
- 2) 공문, 안내문
- 3) 그외 (브로셔, 리플렛, 소식지, 초청장 등)

정보 보완 관리

- 1) 주소록 폐기
- 2) 개인정보 취급 보완서 작성
- 3) 담당자 외 정보 접근 불가 시스템

반송우편물 관리

- 1) 고객요청시 반송우편물 관리
- 2) 반송우편물 관련 주소록 관리

꿈과 희망을
전하는 DM



데이터베이스
관리



디자인



각종인쇄물
제작



주소출력



우편·택배
작업



우체국접수



EM실천 우편발송은?

1. 디자인-인쇄-우편·택배발송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구축
2. 주소출력기, 봉투봉합기, 접지기, 라벨인쇄기, 송장출력기, MZ1070(봉투, 안내문 인쇄기)등 장비 보유
3. 우체국, 로젠, 한진 등과의 계약을 통한 저렴한 우편·택배요금 제공
4. 각종 인증·지정서 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제2009-030호)
 -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2011-008호)
5. 25명 이상의 근로장애인 상시 근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면?

EM실천

Tel. 02-875-9744 Fax.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이메일 em21c@hanmail.net

구르는 재미가 있다!

| 직업재활팀 선임사회복지사 양 현 모



‘인간웃놀이’ 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tv에서 명절만 되면 웃의 탈을 쓴 사람들이 웃놀이했던 모습이 문득 떠올라 "이번 명절프로그램은 인간웃놀이다!"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설날 전날 그렇게나 굴렸답니다.

재정적 한계로 웃의 탈은 쓰지 못했으나 몸으로 웃을 대신했습니다. 모두들 기대 반, 의심 반 시작했고 잘 진행될까 걱정했지만 주춤하던 우리들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고 굴렀습니다. 시끌벅적 환호성을 시작으로 막을 열고 간단히 가위바위보를 하여 3팀을 구성하여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업장 테이블을 가장자리로 모두 붙이고 의자를 둥글게 둘러 웅기종기 모여 앉아 돛자리를 두 개를 깔고 똥굴똥굴 구를 수 있는 세팅 완료!!

요이땡! 신호에 2명은 인간웃이 되고 나머지 한명을 실제 웃을 잡고있다 스톱을





데굴데굴~~~>



'모' 나와라



외치면 굴렀던 몸을 정지시켜 나온 옷대로 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르다 집에는 갈수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3개의 말들은 신나게 말판을 달렸습니다.

1팀이 엎고 달리다 3팀이 잡아 다시 후퇴. 조용히 달리던 2팀이 선두로 달리다 다시 뒤로,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계속되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보너스로 정해진 곳에 말이 도착할 경우 선물을 증정하여 소소한 흥미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주춤했던 우리들이 서로 구르겠다고 나서주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순서도 잊고 그냥 굴렀습니다. 3팀의 역전승으로 승리하여 향이 좋은 커피상품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웃놀이가 이렇게나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웃고 떠들고, 출출해진 배를 채우려 떡과 과일, 음료를 나눠 먹고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제기차기 놀이에서는 김재우씨가 25개이상 차 1등을 차지했고, 자신만만했던 곽철씨는 신발까지 갈아신고 왔으나 아쉽게도 한개를 차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다음게임으로 풍선누가빨리 많이 부는가에선 현진씨가 폐활량1등급으로 승리했습니다. 중간중간 넌센스퀴즈가 웃음을주고 적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간반정도로 짧은 설의 분위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어느때보다 즐거운 설날 이브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달리고 달리고



2013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해외연수보고서_일본베델의 집 방문기

나는 행복합니다.

| 디자인팀 이진숙팀장, 김지현디자이너

2013년 1월 22일 추운겨울날

이엠실천 디자인팀은 회사의 중심인 근로장애인들의 지원체계(그룹홈, 직원재활시설)등을 견학하기 위해 이엠실천의 법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직원 분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 행 비행기에 올랐다.

22
+
23



치토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베델의 집의 환영교류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우라카와로 4시간 이동을 한 후 드디어 베델의 집에서 운영하는 부라부라자 카페에 도착을 하였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환영해주기 위하여 집에 가지도 않고 피곤한 표정이 역력한대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주었다.

부라부라자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어서오세요’ 라는 한글로 표기된 화이트보드지에 눈이 갔고 그 다음엔 아기자기 꾸며놓은 카페에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었다. 부라부라자카페는 베델의 집에서 근로장애인(당사자)들이 제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고, 상품으로는 크게 여러사람들과 같이 작업하는 미역, 공예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여 만든 앨범등이 있었다. 카페식으로 되어있어서 식사도 하고 커피나 차도 마실 수 있고 담소도 나누면서 당사자들의 휴식공간이면서 홍보마케팅 장소로 이용되는 것 같았다.

한울법인직원들이 자리에 앉고 당사자들도 마음에 맞거나 친해지고 싶은 직원들 옆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나에게도 인사를 하셨지만 일본말이 서툴러서 재미만한 소리로 ‘こんばんは’ (곤방와) 로 했었던 것 같다. 약소하지만 당사자들이 만들 어주신 간단한 저녁을 먹고, 간단하였던 것 같았는데 작년에는 더 음식량이 작았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량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저녁밥으로 배를 든든히 한 후 베델의 집의 짙막한 소개와 당사자들의 소개시간이 이어졌고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음악공연이 시작되었다.



도야호수에서 가평장복 김보림선생님과...

보컬과 기타, 피아노, 일본악기를 능숙히 다루었고, 당사자들의 숨은 끼가 보이는 공연이었고, 특히 보컬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음악의 가사로는 당사자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로 작사를 한다고 들었고, 일본어라 번역이 힘들었지만은 힘을 내자는 말이 많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도중에도 더 힘차게 부르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공연을 끝으로 연수의 하루일정은 끝이었다. 내일도 베델의 집의 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므로 일찍 잠이 들었던 것 같다.

2013년 1월 22일 둘째날

베델의 집, 뉴베델의 집, 그룹홈, 부라부라자 카페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룹홈은 남자주거시설, 여자주거시설이 있지만 많은 인원은 볼 수 없는 공간이고 또한 주거시설이었기 때문에 한울법인 주거시설 담당직원들만 방문하였고 멀리에서만 ‘아 이 건물이 주거시설’ 이구나라는 것만 보게 되었다.

일본 성향에 맞는 일본식 건물이었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그대로 들어나 있었다.



베델의 집 보호작업장 소개중...



베델의 집 시설 앞에서 단체사진

공동주거시설과 그룹홈의 견학을 맞치고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전 건물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여서 깨끗하였다. 건물 이 작긴 하였지만 그래도 안은 넓었던 것 같았다.

보호작업장은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다다미식으로 되어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있어 당사자들이 맘 놓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 것 같았다. 우리 이엠실천처럼 납품일자가 급하여 잔업도 있고 한 국성향이 스피드한게 있어서 항상 바쁘지만, 베델의집 보호작업장은 출근할때마다 당사자들의 상태를 파악하 여 하루동안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체크 하여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아 힘들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 을 던졌지만, 어차피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은 일 이고 똑같이 나눠서 배분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고충 은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았다.

베델의 집 기관 견학이 끝이 나고 베델의 집의 강연회

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몇분거리의 강연회장 에 도착하였고 베델의 집에 창시자인 교수님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베델의 집에 설립내용과 당사자들의 사례 발표시간등 이 이루어졌다. 강연과 번역을 번갈아 들어서 그런지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베델의 집 당 사자들은 '열심히 하지않기' '중간에 그만둘 줄 아는 미덕' '자신의 약점 드러내기', '편견과 차별 대환 영', '안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인생', '약점을 유대 기반으로 '안심하고 농땡이 칠 수 있는 직장만들기' 등 이 내용들은 베델의 집에서 추구하는 가치였다.

어떻게 보면 장난같아 보이지만 가치에는 당사자들이 자기의 병에 대해 느낌을 말해놓은 단어들이나 것 같다. 그리고 베델의 집은 자신들의 병이 나올까봐 그병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그 병 덕에 프로의 세계, 이겨 야만 하는 세계, 치기 어려운 공도 기를 쓰고 쳐야 하 는 세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세계, 오로지 상승 지

향인 쳇바퀴에 세계에서 벗어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강연을 듣고 나는 당사자들을 보고 정신건강이 누가 정상인지 헷갈릴정도였다. 내가 더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시간이다.

베델의 집에 오기 전 베델의 집에서 출판 책들을 읽고 오면 더 이해가 쉽다고 하였는데 책을 구하지 못하여 못 읽고 온 것이 후회가 된다. 소식지 때문에 기행문 비슷한걸 쓰고 있지만, 연수의 계기로 책을 구입하여 이엠실천 당사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일본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런식으로 병을 친구처럼 대하고 이겨낸다고, 굳이 병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수없이 말하지만, 이 연수는 나보다 당사자들이 오면 더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녀와서 느낀것들을 이엠실천 당사자들은 더 많이 느끼고 힘이됐을텐데 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엠실천에 입사한지 이제 7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당사자들에 마음을 다 알진 못하고 있다. 그저 수익사업에 전전하여 일과의 얘기만 할 뿐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남들 돌볼 겨를이 없긴 하다. 하지만 베델의 집의 방문으로 이제 당사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이엠실천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돕자, 라는 생각으로 살기로 하였다.

아차 소식지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남깁니다.

‘나는행복합니다’ 라는 문구는 베델의 집 강연회때 하트뽕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당사자 이야기에서... 베델의 집에 와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신게 생각나서 쓴겁니다.



베델의 집 소속밴드 음악공연



세미나 진행중... 노래로 설명하는 시간



2013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자원개발담당 실무자 워크샵

26
+
27



일 시 : 2013.1.31~2.1

장 소 :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참여자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후원
및 자원개발 담당자(중간관리자)

목적

- 2013년 법인 산하시설 후원 및 자원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자원개발전략
- 2013년 법인과 소통하는 브리지 역할로써 종사자들의 책임
- 2013년 법인과 함께하는 후원, 자원개발 담당자들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샵

일정

1/31

이동 - 이동중 맛있는 점심으로 칼국수 한그릇 - 워크샵준비 - 워크샵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표 교수의 인사말 - 종사자간의 인사 - 2012년 법인내 후원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안) 보고 - 2013년 자원개발을 위한 팀별 토의 및 발표 - 저녁식사 그리고 워크샵 평가시간^^

2/1

아침식사 - 비오는 겨울날 산정호수로 이동 - 가는 길은 질척이는 눈과 진흙 - 산아래 산정호수는 공공얼었다. 비오는 산정호수에서 단체사진 찰칵 - 점심은 파주에서 유명한 삼거리 부대찌개 - go~go~ 집으로

법인의 자원개발 워크샵이라는 것을 처음 갔다. 법인과 함께하는 em실천이라는 2013년 목표아래 진행된 첫 행사, 재정능력이 뛰어난지 모르나 늘 한결음씩 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자원개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법인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2013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정기이사회

일 시 : 2013.2.14

장 소 : 비전트레이닝센터

참여자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 및 각 지부별 지부장 및 시설장, 중간관리자

2013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2012년 사업평가, 결산 및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정기이사회는 2013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새가족이된 비전트레이닝 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님들외에 산하시설 대표들과 중간관리자들의 주요업무보고와 참관으로 이루어졌고 중요한 안건들의 심의과정에서는 날카로운 질의응답으로 숨죽이게 하였습니다.

특히 EM실천의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사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매출성과를 보아 법인내 직업재활사업의 주역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2013년 계획한 사업들을 발판으로 2014년 근로사업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김영환 원장님의 사업계획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현수막사업 온라인쇼핑몰

<http://em21cm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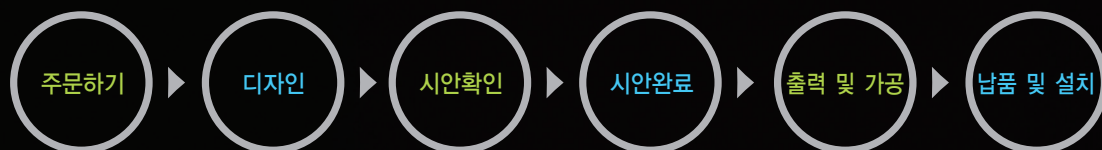
28
+
29



EM실천 현수막사업부

Tel. 02-873-9122 Fax. 02-875-9965

홈페이지 <http://em21cmall.com> 이메일 em21c@hanmail.net



“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신규가입하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벤트기간 | 2013.04.01~2013.04.30

당첨자발표 | 2013.05.10





2013년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까요?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2만원 인상

먼저 이번 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계층별로 월 2만원 인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금액보다 월 2만원 인상된 금액을 1월부터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이 그동안 장애등급 1급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하며,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만 되는 것이고 2급 장애인 모두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서비스는 심사를 받은 후에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활치료서비스 4만명으로 확대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이 3만1,000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대상을 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소득 100% 이상 150% 이하의 가정에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기준도 폐지해서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모두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지만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들은 전기, 전화요금, 지하철, 철도요금들을 할인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시설 늘어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늘어납니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작업장도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대도시 기준 1억3,300만원에서 올해부터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기본공제액을 지난해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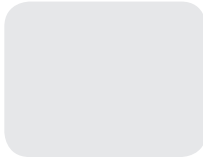
1/1

기능보강사업 기자재 입고
(디지털복사기, 디지털인쇄기, 탐차)



1/7

근로장애인
근로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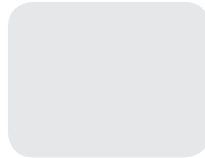
1/22~25

법인해외연수 일본 참석
(이진숙팀장, 김지현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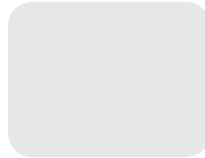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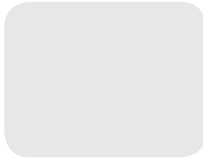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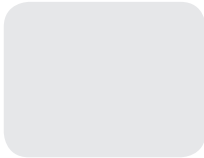
1/31~2/1

법인 TF팀 회의
(김영환원장 박미선팀장)



1/31

임성수팀장 퇴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

금천구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전환 결의 및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양현모)

2/5

'소인성' 소방교육 실시
(구로소방서 이상철, 이동석 소방관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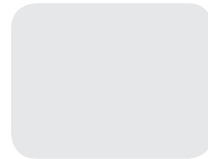
서울시기능보강사업
설명회(김영환원장)

2/7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 실시 - 4명

2/8

명절프로그램



2/19,20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의회
2013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박미선, 권장윤, 이진숙 팀장)



2/21

2013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총회 참석(권장윤팀장)



2/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참석박수현

2/27

가족회
(주제 : 정신장애인의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2/28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사업장 사업좌담회'

3/4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금천구립보호작업장'
개원



3/15

곽익주 공익요원

3/28~29

한국장애인개발원
보수교육

**기관
방문**

1/29

한울센터 실습생
2명(김명희, 김기자)
기관방문

2/22

한울사회서비스단
신규직원 교육 관련
기관방문(4명)

3/13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사진봉사단 방문(근로장애인
30명대상 증명사진촬영)



희망실천

자원봉사 및 후원자료집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34
+
35

EM • 2013 Spring **112** 16



자원봉사자 모집

EM실천은 자원봉사를 통해 근로정신장애인, 종사자와 함께 소통하실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거나 혹은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기다립니다.

1. 소통 분야(모집분야)

- 소통① 교육 분야(한자, 한글, 스포츠, 음악, 미술 등)
- 소통② 직업 분야(컴퓨터교육, 직무지도 등)
- 소통③ 여가 분야(사진촬영, 볼링, 등산 등)
- 소통④ 함께 일하며 근로 장애인과 함께 동행 해 주실 분

2. 활동시간 : 평일 9:00~18:00(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3.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VMS)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 02-875-9744 / 070-7825-8945(총무기획팀 박수현)

홈페이지 : www.em21c.com

E-Mail : em21c@hanmail.net



후원자 모집

■ 직접후원

후원계좌 (예금주 : 이엠실천)

하나은행 577-910004-99104

우리은행 1005-202-023861

농협 301-0104-7345-41

■ 물품후원

생필품, 식자재, 직업재활용품, 김장나누기 등

Thank you...

■ 자원봉사자

가림중학교 양영주학생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사진봉사단

(이인규 선생님, 유영록 자원봉사자)

■ 후원

마포푸드뱅크 식료품 후원

권경문님 모니터 후원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생필품 후원

한국실사출력 선물세트 후원

임영기어머님 간식 후원

금천구정신보건센터 목베개 후원(4개)



인쇄 · 복사

36
+
37

EM • 2013 Spring • Vol.15

책자/카달로그

브로셔/리플렛

전단지

봉투/서식지

마스터 인쇄

복사

Printing • Copy



가치

EM실천에서는 인쇄제품에 감성과 고객의 의견을 부여하며 기획에서 인쇄, 복사, 출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만족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책자/카달로그

마스터, 읍셋인쇄에 다양한 종류의 책자제작
기관 및 기업홍보 마케팅 최고의 아이템 디지털 인쇄, 읍셋 인쇄 소량부수 제작

브로셔/리플렛/팜플렛

기관 및 기업 이미지에 맞춰 감성적인 디자인 제작

전단지

다양한 업종별 전단지 제작 및 디자인

봉투/서식지

다양한 크기와 기관 및 기업에 맞는 봉투/서식지 제작

마스터 인쇄

최신기계 마스터로 흑백인쇄

인쇄(printing)

단 · 양면마스터기를 활용한 공문 및 봉투 출력, 자료집 및 소식지 인쇄



복사(copy)

복사출력(단,양면 소트, 프린트 출력)



인쇄파일확인



제판



인쇄



정합



제본



재단



제품출고



 노동부사회적기업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ISO 9001 · 14001인증업체

“희망·성공·도전기”

EM **실천**
EmpowermentSociety